



주 제:	“마지막 날”	“연중 제 33 주일 (다해)”	2007년 11월 18일
복음 묵상:	루카 21,5-19	말라 3,19-20 ㄱ	2 에살 3,7-12

오늘 복음(루카 21,5-19)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다. 세상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은 한 마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11월은 위령성월로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보내는 은총의 시기이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죽음을 자주 묵상하도록 권고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빛나고 분명해지는 이치이다. 세상 종말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7-19)  
 (서울 허 영업 신부님 강론 중에서)

## 1. 성가대 소식

- 북가주 천주교 연합 합창단 발표회에 본당 성가대에서 김진희유스티나(솔로), 김인숙 세실리나, 최남숙멜라니아, 문 성호 요셉형제님이 참가하셨고, 본당에서 이크리스티나, 이찬숙 에메렌시아 자매님도 참가하시어, 산호세 본당에서는 6명이 참석하여 S.F.의 아그네스 성당에서 11/17(토)에 성황리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 최주남 예로니모 형제님과 최 도미니카 자매님 지난주 중부로 여행하시고 15(목)일 돌아오셨습니다. 여행중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탄 미사곡은 본당 웹 성가 연습방에 NWC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MP3 파일을 구하지 못해 CD 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 성탄절이 **5 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주 미사후 성탄 미사곡 연습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즐거운 성탄 전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윤안도 요셉 형제님**의 부친의 병환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니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해 주십시오
- **조 율리안나 자매님** 약 2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2. 기도 요청

12월 2일 본당 성심 **성가대의 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건:

1. 2006년 및 2007년 회계 결산보고
  2. 신임 단장 (2008년) 선임.
- 기타.

차기 성가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성가대장을 뽑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루카 21.14)

“Remember, you are not to prepare your defense beforehand, for I myself shall give you a wisdom in speaking that all your adversaries will be powerless to resist or refute.”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 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 때 어떻게 항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 넘겨서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1분 명상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 연설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들만이 당신의 마음 속에 발자국을 남기지요, 스스로를 조절하려면, 당신의 머리를 사용해야 하고, 다른 이를 조절하려면, 당신의 마음을 사용해야 하지요.

노여움(anger)이란 위험(Danger)에서 한 글자가 빠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처음 배신했다면 그건 그의 과실이지만, 그가 또 다시 당신을 배신했다면 그 땐 당신의 과실입니다. 커다란 마음으로 이상에 대해 토론하고, 작은 마음으로는 사람에게 대해 토론합니다.

돈을 잃은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며, 신의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By your perseverance you will secure your lives.”(Luke 21,19)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을 선물 받은 하루, 축복의 기회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